포천문단을 가꿀 詩人 2명 탄생

양근희 · 김미화 月刊 문학세계로 등단

월간문학세계 6월호에 신인문학상 수상으로 등단한 시인 2명이 포천출신이거나 포천에서 살고 있다. 양근희 시인은 포천초등학교와 포천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포천출신이고 김미화 시인은 포천에서 살고 있는 포천시민이다. 포천문단을 가꾸어 갈 여류시인 2명의 활약상을 기대하며 앞으로의 각오와 다짐을 듣기로 한다. 먼저 양근희 시인을 만났다. 〈편집자주〉

양 근 희 시인

"쨍한 햇살에 전율하는 아침 가슴에 파고들던 찬연한 빛, 신인상 당선! 늘 꿈꾸어 오던 단어로 인생을 확 바꿀만 한 마법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인의 길이 시작되는 긴 여로 이제 청량한 문학의 길에서 참 소리로 끝까지 걷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일상의 의미들이 시로 탄생될 때마다 보아주고 귀 기울여 준 나의 남편과 시 쓰는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하는 아름다운 분신인 형래, 승준이, 도영이 믿음으로 응원해 준 지우지기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부족한 글을 신인상으로 뽑아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정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낮은 자리에서 빛나는 물빛으로 문학의 강을 따라 흐르겠습니다."

양근희(48 · 사진 · 예명 하은)시인이 밝힌 신인상 당선 소감이다. 이번에 당선작품은 '추억 속의 널빤지', '시인의 길', '민들레', '잊지 못할 아픔이어서', '하찮은 것들에 대하여' 등 5개 작품이다.

월간 문학세계 심사위원(윤제철 장윤우 박덕중 도창희)은 심사평에서 "하은 님의 작품들은 대부분 진솔하고 감동적인 시적 산실을 내포"하고 있으며 "따뜻한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인정이 담겨져 있다"고 밝혔다.

양근희 시인은 "마홀문학회에서 1개월 1회 만나되 작품 1편씩을 창작하여 서로 읽고 느낌을 나누는 시간들이 등단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고 밝히고 "포천문단의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꾸준한 습작을 통해 작품을 검증받고 본격적으로 작품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것은 2년전이다. 양 시인은 "샐러리맨들이 끼고 다닐 수 있는 생활 속의 감동적인 작품을 쓰고 싶다"고 한다.

포천에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갖고 포천문단의 발전을 위해 등단시인으로서 역할을 강조하고 나서는 양 시인의 각오에서 포천문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제12회 포천어린이연극경연대회

관인초 · 화현초 대상 차지

제12회 포천어린이연극경연대회에서 관인초등학교 '내마음의 노래'(연출 심은행)와 화현초등학교 '욕대장 꿈대장'(연출 이영신)이 대상(포천시장상, 포천교육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사)한국연극협회 포천시지부(지부장 이희용)가 주최하고 경기도포천교육청(교육장 변지수)과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이 주관하여 지난 5월31일 포천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개최됐다.

대상을 수상한 관인초등학교(교장 강재일) '내마음의 노래'(연출 심은행)에 출연한 김초록, 유주형, 강다현, 고단비, 신동민, 이재강, 김용환, 전경준, 정수진, 안선경, 조경신, 이재영, 박소혜, 최다혜 유동훈, 최승화 학생들이 수상을 기뻐하고 있다.

대상을 수상한 화현초등학교(교장 김태곤) '욕대장 꿈대장'(연출 이영신)에 출연한 김현민, 김숙경, 이지은, 연승현, 김누리, 선수진, 김준호, 김관성, 김종민, 진효성, 지한규, 박승재, 조명학, 한미정, 연영모, 박영권, 김문태, 김성희, 이경현, 김은하, 이은지 학생들이 수상을 기뻐하고 있다.

포천 관내 5개 초등학교 대표팀이 참가한 가운데 펼친 경연결과 금상(포천문화원장상)은 왕방초등학교 '사운드 오브 뮤직'(연출 김진모)이 수상했고 은상(포천예총회장상)은 일동초등학교 '고슴이와 다람이'(연출 임진선), 동상(포천연극협회장상)은 송우초등학교 '너 혼자 놀아'(연출 이신영)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표창장은 최우수연출상(포천신문사장상)에는 관인초등학교 심은행 교사가 수상했고 연극지도 및 연출상(경기도포천교육장상)은 관인초등학교 심은행 교사, 일동초등학교 임진선 교사, 송우초등학교 이신영 교사, 화현초등학교 이영신 교사, 왕방초등학교 김진모 교사가 각각 수상했다.

연기상(포천연극협회장상)은 왕방초등학교 정혜연 학생, 관인초등학교 김초록, 일동초등학교 이경암 학생, 송우초등학교 김다혜 학생, 화현초등학교 김현민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이날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우영 대진대학교 교수는 "이번 경연대회 심사의 비중은 학생들의 작품 창작능력에 큰 비중을 두고 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히고 "어린이다운 순수한 창작극이 앞으로도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연대회는 포천시, 포천시의회, 대진대학교, 포천예총, 포천중문의과대학교, 포천시자원봉사센터, 이해조문학회, 포천시문화예술봉사단, 포천신문, 포천의제21, 그린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후원해 마련됐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영북초 "풀피리로 전통문화 이어가요"

어린이 국악경연대회 장려상 수상

제4회 전국 어린이 국악경연대회 악기종목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영북초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성수현 교사와 풀피리 연습을 하고 있다.

영북초등학교(교장 윤성모) 학생들이 지난달 26일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서 개최된 제4회 전국 어린이 국악 경연대회 악기종목에서 장려상을 받아 풀피리(초적)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영북초는 성수현(36) 지도교사를 중심으로 안서연(6년), 김민주(6년), 김지연(6년), 라윤환(6년) 학생 노래, 악기, 풍물, 무용 총 4개종목중 풀피리를 갖고 악기종목에 참가했으며 총 17개 팀이 참가해 경연을 펼쳤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주최하고,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국악계의 어린이들을 발굴하며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성수현 교사는 "이번 대회는 풀피리로 경연을 치른 처음 대회이고 풀피리의 악기로서 우수성을 널리 알린데 의의가 있다"며 "악기가 다루기 쉽고 재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전통문화 보급에도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 장려상을 수상한 영북초는 아리랑,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 등의 아리랑을 메들리로 연주해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특별기고

연극제 심사유감

윤 우 영

대진대 연극영화학부 교수, 연출가

'연극을 왜 하는가?'

전국연극제 경기도예선, 전국연극제 인천예선, 서울 청소년연극제, 포천 어린이 연극경연대회 등 일련의 연극경연대회를 심사하며 자주 떠올렸던 말이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근래의 연극경연대회가 연극 본연의 기능을 잃고 마치 정치판처럼 돌아가고 있다는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일반인 연극뿐만 아니라 청소년 연극과 심지어 어린이 연극까지 교육적인 면에서 그 순수성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도 든다.

예로부터 연극은 성스러운 제의식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연극을 매개로 인간사회의 발전과 화합도 이루어왔다. 특히 영상매체가 주도하는 현대사회에서도 교육연극(T.I.E/ D.I.E)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우리의 진솔한 이야기를 서로 가깝게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실연(Live)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예술적인 기능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피곤한 일상에 찌든 성인들에게는 일상탈출과 스트레스 제거 수단으로, 각종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치료 수단으로, 또한 청소년 및 어린이들에게는 인간 및 사회를 보는 눈을 키워주며 명확한 자기표현과 원활한 대인관계를 위한 도구로, 연극은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회적 요소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회적 기능과 더불어 병폐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경연대회가 끝나면 예외 없이 항상 잡음이 들려온다. 물론 수상권에서 제외된 단체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일부 성인연극 단체들은 이미 그 도를 넘은지 오래됐고 심지어는 청소년 연극과 어린이 연극 경연대회까지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에 노골적으로 지나친 불만을 표시하는 어이없는 현 상황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일반인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깨끗한 승복을 배워야할 청소년 및 아이들에게 이런 일들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왜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어떤 대회든 심사규정이 있다. 심사위원들은 경연대회에 참가한 단체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20-30여년이 넘게 연극만을 해온 전문가들이며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또한 심사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들은 누구나 다 뼈를 깎는 아픔을 경험한다. 수상하지 못한 단체의 아픔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판단의 어려움에 있지 않다. 결과에 대해서 자신들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 못하는 무지함에 있다. 예를 들어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몸짓과 언어로 만든 순수창작작품과 거의 모든 동작과 대사를 영화에서 그대로 베껴 만든 작품 중 어느 쪽에 많은 점수를 줄 것인가는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작비를 좀 더 들이고 남의 작품을 완벽하게 재현했다 하더라도 가산점을 줄 수는 없는 문제이다. 더욱이 그것이 본선대회를 염두에 둔 작품이라면 당연히 순수창작에 점수를 후하게 줄 수밖에 없다.

본선대회를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그 참고자료가 연극이든 영화든 기록되어진 비디오를 보고 자신들의 언어와 몸짓인양 그대로 복사해 놓고 경연대회에서 좋은 평가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단체는 교육연극의 측면으로 볼 때 연극 만들기가 목표가 아니라 철저하게 작품의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연극을 이용해야 할 것이며 경연대회에는 말 그대로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어야 할 것이다.

연극을 하며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며 우리의 오래된 치부이기도 하다. 평균 연봉 OOO만원이라는 최근의 뉴스 발표가 사실이라면 극빈자로 분류되는 전문연극인들에겐 어떤 직업의식이 있을까. 만일 경제적인 것을 염두에 둔다면 월급을 받는 안정된 다른 직업을 택하면 될 것이고 대중적인 인기를 바란다면 영화나 TV에 전념하면 될 것이다. 대중적인 인기도 없고 경제적인 실속도 없는 연극을 한다는 것은 결국 순수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만이 누리는 특권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문연극인들의 경우 예술의 사회적인 기능을 제외하고 대부분 자기만족으로 작업을 한다. 좋아서 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다. 따라서 부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반면에 비 전문연극인들의 경우는 대부분 교육연극 즉, 연극의 사회적인 기능을 염두에 두며 작업을 할 것이다. 앞서 거론했던 교육연극의 사회적 기능은 참여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사고능력, 과제 해결 능력을 길러 주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에서는 문맹퇴치를 위해 거창하게 연극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기도 한다.

경기도에 속해 있는 많은 비 전문연극인들은 과연 어떤 기능을 염두에 두고 작업하고 있는가. 만일 자신이 속한 단체의 대내외적인 과시를 위해 연극을 한다면 스포츠 팀으로 전환할 것을 권유하고 싶다. 승패를 중시하는 전투적인 노력은 운동경기가 더 적합하기 때문일 것이다.

배우들의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그리고 연출의 시각적이며 청각적인 무대가 자신들 뿐만 아니라 일반관객들과 청소년 및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존 오스본의 〈성난 얼굴로 돌아보라(Look Back in Anger)〉라는 일개 연극작품이 1950년대 영국사회에 끼친 엄청난 영향에 대하여 여기서 자세하게 거론할 수는 없지만 연극이라는 매체가 갖고 있는 무서운 힘을 느낄 수 있는 한 예이다. 이러한 예는 무수히 많은데 연극이 연희자와 관객 모두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어느 매체보다도 순수성이 더욱 요구되는 것이다.

물론 연극을 하는 경기도의 대부분 많은 단체들은 순수하게 연극 본연의 기능을 잃지 않고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다. 학교의 연극반도 역시 교육적으로 아이들의 정신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행사가 끝나고 들려오는 무수한 뒷이야기와 때로는 지나친 항의와 갈등이 극히 일부분이며 예외 없이 경기도에도 있다는 것이 특이한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경기도 연극의 발전을 위해서 또한 경기도 청소년 및 어린이들의 교육연극의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 집행부와 참여단체 모두가 반성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랑받기 보다는 사랑하자. 새삼 성프란체스코의 기도를 떠올려 본다.

초대 漢詩

吟槐夏風光(음괴하풍광) 초여름 풍경을 읊음

年光流水已薰風(년광류수이훈풍)
세월은 유수같아 벌써 초여름 바람이 부는데

雨順移秧可望豊(우순이앙가망풍)
비가 때 맞추어 내려 모내기를 마쳤으니 풍년이 들겠네

楊柳抽靑靑氣動(양류추청청기동)
버들은 푸르름을 더해 맑은 기운이 일고

薔微綻紫遺香充(장미탄자유향충)
장미는 붉은 빛을 터뜨려 향기가 진동하는구나

夏雲皓白形高怪(하운호백형고괴)
구름은 유난히 희고 모양은 다양하며

炎帝尊嚴德滿洪(염제존엄덕만홍)
여름을 다스리는 황제는 존엄하며 덕이 넘치도다

好節吟觴相會席(호절음상상회석)
좋은시절 글짓고 술잔 기울이며 모이는 자리에서

賢師弟子樂和融(현사제자락화융)
선생님과 제자들의 즐거움이 넘쳐 흐른다.

抱川漢詩社長
李曉鐘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33)

포천의 원앙새

오리과의 새인 원앙새(鴛鴦:Alix galeyculata)는 날개의 길이 25cm~21cm, 부리는 볏깃(冠翼:관익)이다.

여름 깃털은 머리와 목이 회갈색, 등k은 올리브색, 가슴은 갈색 바탕에 백색 얼룩이 있다.

암수가 거의 같은 빛깔이다. 즉 볼과 목의 도롱이 같은 깃털은 적갈색이고, 가슴은 자색이며 옆구리에 흑색 줄이 두줄 있다.

겨드랑은 황갈색에 흑색 점이 있고 부리는 홍색이다.

5~6월에 산간의 강가와 호수가, 논, 습지 등에 살며 나무에 구멍을 파고 10개 가량의 알을 낳은다.

몇 마리씩 떼를 지어다니는 경우가 많다.

옛날부터 사이좋게 지내는 새로 유명하며 한국과 중국사람의 생활면에 깊숙이 파고든 전설이 많은 새이다.

식물의 씨, 곤충류를 먹으며 겨울새와 텃새로 나누어진다. 한국 · 중국 · 일본 · 대만 · 만주 · 동부 시베리아 등지에 널리 퍼져 살고 있다.

내고향 출신 작가 이해조(李海朝)님은 신소설 '원앙도(鴛鴦圖, 1911년)'를 간행하였다.

선대에서부터 원한을 두어오던 민군수(閔郡守)와 조판서(曹判書) 두 집안이 그 자녀들의 기지(機智)로 숙원도 풀고 백년가약을 맺게 된다는 이야기로, 당시 구한말 정치 · 사회의 암흑상과 모순이 잘 묘사되어 있어 재미있고 유명하다.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 원앙새는 부부 금슬의 상징이며 다정한 부부의 상징으로 '원앙금침(다정한 금슬 좋은 부부의 침구)', '원앙새 한 쌍 같은 부부'라는 말이 있다.

천연기념물 제327호로 지정된 원앙새 도토리를 즐겨 먹지만 냇가에서 물 속 곤충도 배불리 먹고 사는 새이다.

내 고향 포천 광릉 국립수목원 숲의 나무 구멍에서 드물지 않게 많이 번식하는 텃새이기도 하다. 내 고향 포천에서 서식하는 13목(닭, 기러기, 세가락 메추라기, 딱따구리, 후투티, 파랑새, 뻐꾸기, 칼새, 올빼미, 비둘기, 두루미, 황새, 참새목) 중 기러기목, 오리과에 속하는 2종의 하나인데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랑새의 일종이다.

내 고향을 상징하는 새가 까치에서 원앙새로 바뀐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까치는 남의 새의 새끼, 알을 쪼아 먹고 공들여 지은 과수원 농사를 망치고 고앞선 전신주에다 집을 지어 정전사고까지 일으키며 집단 행동으로 황조롱이 같은 맹금류의 새도 내쫓는 '까치'에 비해 '부부금슬'과 사랑의 상징인 '원앙새'로 '포천의 새'를 삼았음은 퍽 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포천인들이여! 원앙새의 금슬좋은 사랑 본 받아 복 받고 다정한 행복의 가정 이룩하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는 바이다.(원앙새를 닮아 이혼률 0%의 포천시를 만들자)

필자연락처 02-932-2434

초대 詩

시인의 길

포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인이나 시 동호회원들의 작품을 통해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인이나 시 동호회는 물론 시민들과의 작품 공유를 위해 초대 시를 연재하기로 한다. (편집자주)

시인의 새벽은
아름다운 언어 속에서 깨어난다
새로운 시어로 기지개를 켜며
지난밤을 고스란히 반납한 채
고통을 수반하기도 하는
날카로운 환희의 단물을 마셔 가며
때로는
고약한 언어의 난무하는 질책에
야금야금 야위어 가기도 하면서,
가까운 곳에 산재해 있는 시의 상징들 속에
날마다 기쁨을 찰지게 반죽해 이겨 넣어
희망으로만 도약하는 춤을 빚는다
아름다운 나의 연인!

그에게는 고통이 없다
가난한 어미의 등에서 칭얼대는 아이 같은
시상(詩想)에 가슴 저미다가도
환한 웃음으로 팔장 끼며 다가오는
하얀 지면에 난무하는 검은 글씨들의
알찬 탄생 하나로
시린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어,
지금도 새로운 언어의 길을
간결한 걸음으로 꿈처럼 내쳐 걸으며
겨울의 끝 낙숫물 소리
컴퓨터 자판의 이야기를
신중하게 듣고 있다

양 근 희
시인 · 마홀문학회 회원